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한려 수교 25주년 의미와 시사점
- 유라시아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발행인 : 강인수
편집주간 : 김동열
편집위원 : 주원, 이부형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러 수교 25주년 의미와 시사점
- 유라시아 시대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25주년을 맞은 한·러 수교	1
2. 한·러 경제 교류 현황	2
3. 시사점	9

< 요약 >

■ 25주년을 맞은 한·러 수교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 경제의 성장 둔화로 對 러시아 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파급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러 수교 후 지난 25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러 경제교류 현황: 극동지역의 2대 교역국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 투자, 극동지역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극동지역과의 교역액이 전체 한·러 간 교역액의 약 40%를 차지(2014년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 한·러 간 교역 규모가 지난 22년 간 134배 증가했다. 한·러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4년 258.0억 달러로 약 134배 증가했다. 對 러시아 수출은 '92년 1.2억 달러에서 '14년 101.3억 달러로 연평균 22.4%, 對 러시아 수입은 동기간 0.7억 달러에서 156.7억 달러로 연평균 27.5%씩 성장하였다.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전자기기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 지난 25년 간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15배,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47배 증가했다.**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1990년 0.09억 달러에서 2014년 1.35억 달러로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0.01억 달러에서 2014년 11.9억 달러로 연평균 약 38%씩 증가하였다. **(극동지역 개발 협력) 한국은 극동지역의 제2교역국이자, 제10위의 투자국이다.** 한국은 극동지역의 제1수출국이자, 제3수입국(2014년 기준)이다. 2014년 기준 러시아 극동지역의 對 한국 교역액은 102.3억 달러로 동 지역 전체 교역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극동지역 제10위의 투자국으로, 한국의 동 지역 투자액은 2004년 0.2억 달러에서 2013년 0.4억 달러로 연평균 7.7%씩 증가하였다.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투자는 농업, 에너지,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인적 교류) 양국 간 인적 교류도 11배 증가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0년 3.0만 명에서 2014년 32.8만 명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방한 외국인 중 러시아인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1.5%로 상승했다.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150달러로 4위 수준(2014년 기준)이다.

■ 시사점

한·러 간 경제·사회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극동 러시아 지역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러 간 산업·인적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한·러 FTA 추진 등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과 함께, 인적교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한·러 경제 협력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북·러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확대하여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변국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북극 개발을 위한 한·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1. 25주년을 맞은 한·러 수교

○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한·러 경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경기 위축 등 리스크의 국내 경제 파급 우려가 존재

- 1990년 수교 이후 한·러 간 경제 협력이 지속 강화

- 한·러 간 경제 협력은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2015년 8월까지 지난 25년간 경제 교류가 지속 확대
- 특히,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통상·투자·수산 등 실질 협력 논의 본격화

- 한편, 최근 러시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감소 등 국내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

-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토 편입 이후 미국과 EU의 對러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악화
-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등 최악의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 전반의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어 한국의 對러 수출 감소 우려 존재

○ 이에 한·러 수교 후 25년 간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관계 >

시 기	양국 관계	의미
수교 초기 (1990~1993)	외교관계 정상화	- 한·소 국교 수립 및 소련 소멸로 러시아가 한·소 외교관계 자동 승계
확대 단계 (1994~2003)	상호 보완적 동반자 관계	- 경제·통상, 문화 교류 본격화
발전 단계 (2004~2007)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 북핵 등 정치적 논의 진전과 함께, 우주과학기술, 자원·에너지 협력 강화
심화 단계 (2008~2009)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 전통 안보 문제는 물론,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문제에 대한 소통 심화·확대
도약 단계 (2010~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 비자면제 등 경제·문화 교류 심화 - 유라시아 다자간 협력 확대·강화

자료 :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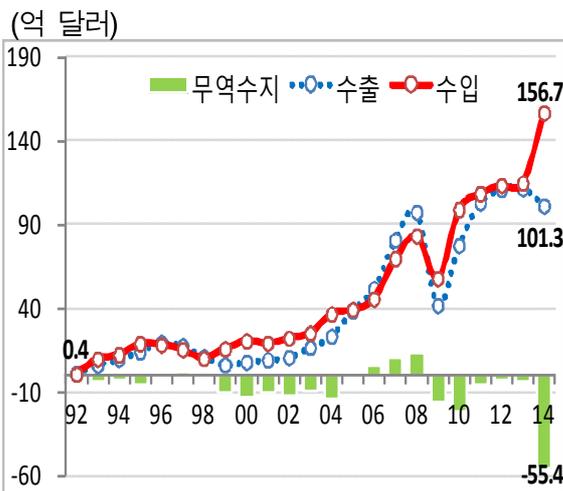
2. 한·러 경제 교류 현황

① 교역 : 한·러 간 교역은 1992년 대비 2014년 약 134배 증가

○ 한·러 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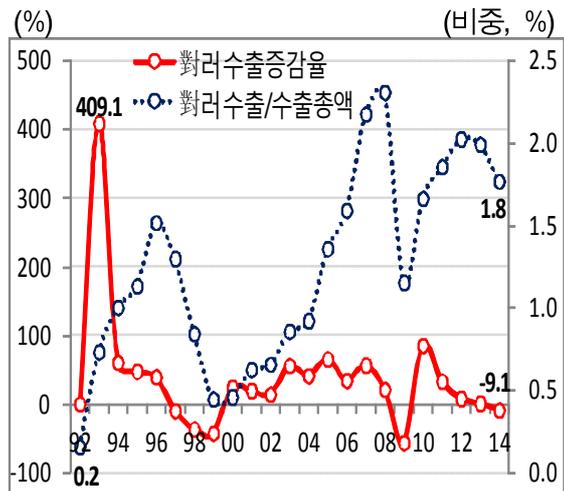
- 한국의 對 러시아 교역은 지난 22년간 133.7배 증가, 11위 교역국(2014년 기준)
 - 한국의 對 러시아 교역액은 1992년 1.9억 달러에서 2014년 258.0억 달러로 지난 22년 간 연평균 24.9%씩 성장
 - 對 러시아 수출은 '92년 1.2억 달러에서 '14년 101.3억 달러로 연평균 22.4%씩 성장, 對 러시아 수입도 동기간 0.7억 달러에서 156.7억 달러로 연평균 27.5%씩 증가
 - 무역수지는 1992년 0.4억 달러 흑자였으나, 1998년 모라토리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적자 폭 확대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기 위축 등으로 對 러시아 수출이 감소
 - 한국의 총수출 중 對 러시아 수출 비중은 1993년 0.7%에서 2014년 1.8%로 확대
 - 하지만, 對 러시아 수출 증가율은 동기간 약 409%에서 -9.1%로 감소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제 성장 둔화로 對 러시아 수출 경기가 악화

< 한국의 對 러시아 교역 현황 >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992년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출범 시기 기준.

< 한국의 對 러시아 수출 의존도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수출의존도란 수출 총액 대비 對 러시아 수출 비중.

○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전자기기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원자재임

-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전자기기 등임

- 對 러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1990년대에는 가열 난방기, 칼라 TV 등 가전제품이었으나, 2004년 이후 승용차가 수출품목 1위를 차지
- 승용차 수출 증가와 함께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하여 2005년부터 수출품목 2위를 차지
- 한편, 러시아 경기 위축으로 2015년 1~7월간 승용차 수출액은 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3% 감소

- 한국은 對 러시아 수입 품목은 원유, 알루미늄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룸

- 對 러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1990년대에는 강판, 알루미늄 등이었으며, 2007년 이후 원유가 수입품목 1위를 차지
- 최근 우리나라의 자원 수입이 늘어나면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

<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변화 > < 한국의 對 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 변화 >
(백만 달러) (백만 달러)

순위	1992년		2014년		순위	1992년		2014년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가열난방기	11	승용차	2,405	1	강판제품	22	원유	4,255
2	혁의류밋기타	11	자동차부품	1,396	2	동괴밋스크랩	12	나프타	4,027
3	당류	10	해양구조물	854	3	천연섬유원료	7	유연탄	1,381
4	칼라TV	9	합성수지	417	4	동물성한약재	5	천연가스	1,248
5	세탁기	8	칼라TV	353	5	알루미늄괴밋스트랩	5	중유	1,192
	합계	118	합계	10,129		합계	75	합계	15,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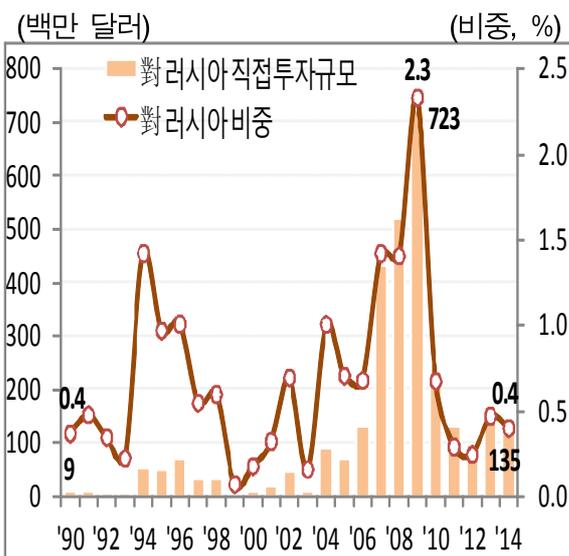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MTI 4단위. 주 : MTI 4단위.

② 투자 : 지난 25년 간,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15배,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47배 증가

○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

-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1990년 대비 2014년 약 15배 증가
 -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 총액은 1990년 0.09억 달러에서 2014년 1.35억 달러로 연평균 약 12%씩 증가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제28위 투자대상국이며, 투자액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4% 수준(2014년 기준)
 - 2009년 7.2억 달러에 달했던 對 러시아 직접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위축
- 한편,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對 러시아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
 -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 러시아 직접투자 비중은 1990년 95%에서 2014년 약 42%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동기준 4.8%에서 32.9%로 증가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러시아 비중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신고금액 기준.

< 업종별 한국의 對 러시아직접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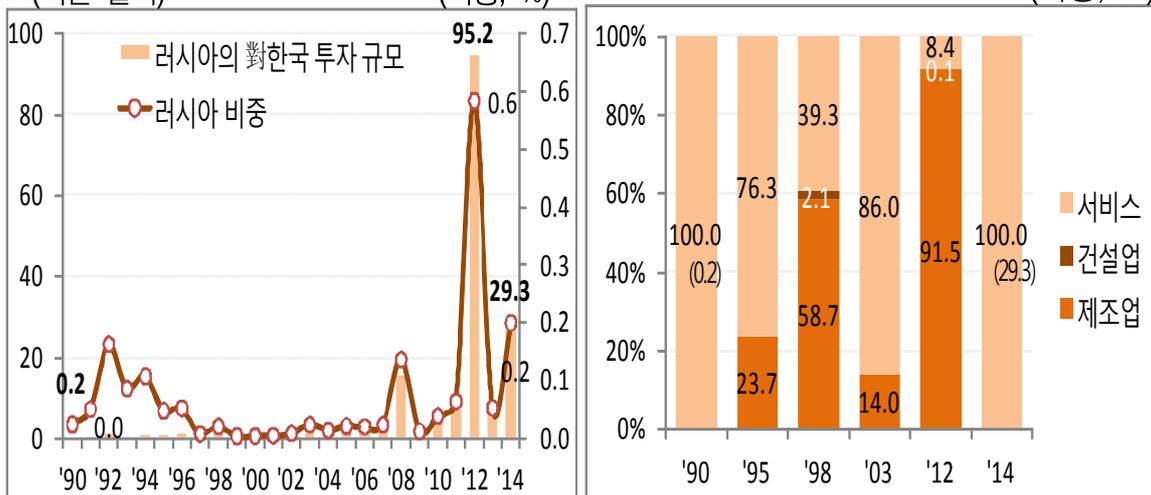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백만 달러.

○ 또한,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이 중심

-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0년 대비 2014년 약 147배 증가
 -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 총액은 1992년 20만 달러에서 2014년 0.3억 달러로 연평균 23.1%씩 증가
 - 對 한국 외국인 직접투자 중 러시아의 비중은 2012년 0.6%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 2014년 현재 0.2% 수준임

- 한편,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제조업 투자도 병행
 - 제조업의 경우,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0~2014년 전체 투자액의 54.9%인 1.02억 달러임
 - 특히, 제조업 중 운송용기계 부문에서 2012년 0.87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
 -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동기간 전체 투자액의 44.8%인 0.84억 달러임

<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러시아 비중 > (백만 달러) (비중, %)
 < 업종별 러시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 > (비중,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신고금액 기준. 주 : ()는 백만 달러.

③ 극동지역 개발 협력 강화: 한국은 극동지역의 2대 교역국

○ 한국은 2014년 기준 극동지역의 제2교역국이며, 제10위의 투자국임

- 한국은 극동지역의 제1수출국이자, 제3수입국임(2014년 기준)

- 2014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對한국 교역액은 102.3억 달러로 동 지역 전체 교역액의 26.2%를 차지
- 이 가운데 對한국 수출은 91.2억 달러로 지역 전체 수출액의 32.0%, 對한국 수입은 11.1억 달러로 지역 전체 수입액의 10.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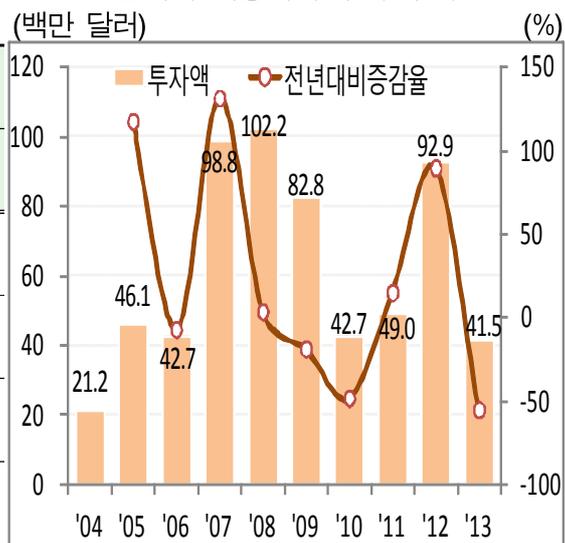
- 한국은 극동지역 제10위의 투자국임(2013년 기준)

-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액은 2004년 0.2억 달러에서 2013년 0.4억 달러로 연평균 7.7%씩 증가
- 2013년 기준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는 전체 투자유입액 59.7억 달러의 0.7% 수준

<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역 현황 >

구분	2013년			2014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전체	28,030 (100.0)	12,033 (100.0)	40,063 (100.0)	28,515 (100.0)	10,497 (100.0)	39,012 (100.0)
일본	9,135 (32.6)	1,727 (14.2)	10,862 (27.0)	8,468 (29.7)	1,774 (16.9)	10,242 (26.3)
한국	8,420 (30.1)	1,475 (12.1)	9,896 (24.6)	9,115 (32.0)	1,113 (10.6)	10,228 (26.2)
중국	5,450 (19.4)	5,749 (47.1)	11,198 (27.8)	5,436 (19.1)	4,729 (45.1)	10,165 (26.1)

<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 추이 >



자료 : 러시아 극동연방관구관세청 자료로 현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는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러시아 통합통계정보시스템 자료로 현 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국내 기업의 극동지역 투자는 농업, 에너지,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

- 러시아는 극동·바이칼 지역에 2025년까지 약 6조원을 투자할 예정
 - 극동·바이칼지역은 러시아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 (러시아 전체 주석의 100%, 다이아몬드의 98%, 금의 68%, 수산물의 65% 생산)¹⁾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등 경제 발전이 지체
 - 러시아는 2013년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국가 프로그램(2025 극동개발계획)'을 수립, 2014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을 축소
 - 개발계획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해 2025년까지 역내 총생산을 2011년 대비 1.4배 향상, 역내 인구 650만 명 증가 등을 목표로 함
- 한국 기업들도 농업, 에너지 및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극동지역 진출을 확대
 - 극동지역에의 투자는 1997년 현대호텔 건설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추진
 - 최근 공항 현대화 등 건설, 물류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2025 극동개발계획' 수정안의 내용 >

구분	내용
총투자액	- 3,461억 루블(약 6조원)
수행기간	- 2014~2025년
개발 지역	- 극동 연방 관할구역 9개 - 이르쿠츠크주, 브리야트공화국 자바이칼지방 등
주요 프로젝트	- 선도시회경제개발구역 사업 - 교통, 물류 프로젝트 사업
주요 목표	- 2025년까지 역내총생산 1.4배 향상 - 역내 인구 650만 명 증가

자료 :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개발'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그램 수정안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주요 투자 내용 >

투자 부문	투자 지역	투자 내용
통신	프리모리에 변경	이동통신서비스사업
농업	연해주, 아무르주 (선도개발구역)	농업 및 농산물 가공
물류	블라디보스톡	극동물류센터 건설 운영
	하산	복합물류개발사업
에너지	연해주	석탄터미널 건설, 석유가스발전소
	루스키섬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 사업
건설	극동 러시아 전역	공항 현대화
제조 (자동차)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수출 조립공장

자료 : 수출입은행(2015) 자료 및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1)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방안", Vol. 2015-지역이슈-07, 2015.6.24, p. 3.

④ 인적 교류: 인적 교류 규모는 1990년 대비 2014년 약 11배 증가

○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소비액은 4위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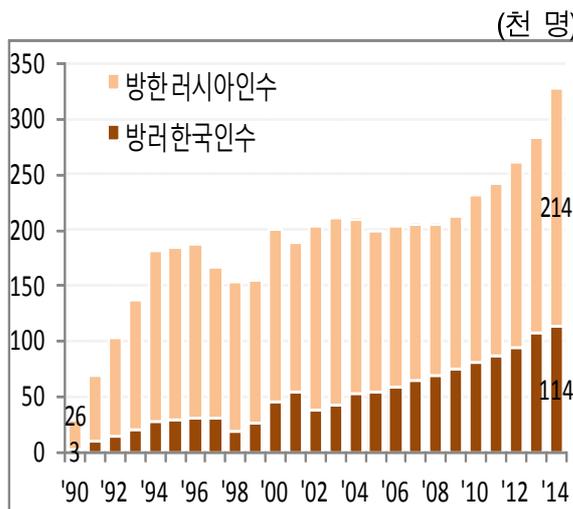
-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가 지속 확대

-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1990년 3.0만 명에서 2014년 32.8만 명으로 11.1배 증가, 동기간 연평균 10.6%씩 증가
- 방한 러시아인 수는 동기간 2.6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약 8.2배 증가, 방한 러시아인 비중은 0.9%에서 1.5%로 상승
- 방러 한국인 수도 동기간 0.3만 명에서 11.4만 명으로 약 3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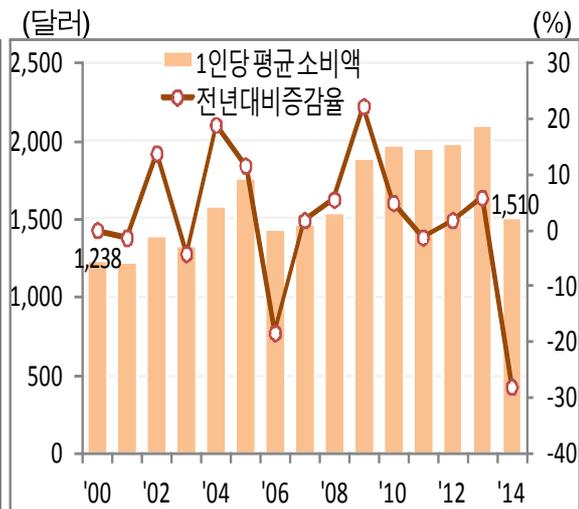
-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4위(2014년 기준)

- 2014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150달러로 4위 수준임
- '2014-15 한-러 상호 방문의 해' 지정 및 무비자 시행('14.1 발효)으로 향후 러시아 방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러시아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

< 한·러 간 입국자 현황 >



< 방한 러시아 관광객 소비액 >



자료 : 한국관광통계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자료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3. 시사점

○ 한·러 간 경제·사회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극동 러시아 지역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

- 첫째, 산업·인적 교류 지속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 지속 추진
 - 양국 간 수출 및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러 FTA 추진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 ‘한·러 BEPA(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양자간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연구 재개 등 실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2014-15 한·러 상호 방문의 해’를 계기로 양국간 인적교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 한류 등 맞춤형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지속

 - 둘째, 한·러 경제 협력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新 동방정책’의 정책적 합의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에 대한 한·러 정부간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 등 투자의 확대·다변화 추진이 필요
 - 또한, 남·북·러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확대하여 남·북·러 3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주변국들을 전략적으로 활용

 - 셋째, 막대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북극 개발을 위해 한·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함
 - 막대한 양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북극권에 대한 개발 및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한·러 간 협력 강화
 - 북극 개발 관련 한·러 간 공동 연구 및 해운 협력을 확대·강화
- ※ 북극해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가스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관계부처 합동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

이해정 연구 위원 (2072-6226, hjlee@hri.co.kr)